

장성군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 나섰다

전문가 30명 라운드 테이블 회의 진흥원 유치 음식문화 선도 모색 김한중 군수 "음식 고부가가치 창출"

장성군이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유치를 시도를 걸고 맛의 본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을 소재 아인미술관에서 '남도음식의 품격, 문화로 말하다'를 주제로 음식문화 선도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회의에는 김한중 장성군수를 비롯한 사찰 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과 분야별 전문가, 지역인, 언론인, 군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토론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국립남도음식진흥원은 전남도가 정부에 설립을 건의한 후 타당성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한식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소로서 국가차원의 남도음식 육성사업과 연구, 산업화, 세계화 추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설립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사찰 음식문화 발전을 이끌고 있는 정관스님은 "해외에선 한국의 발효음식, 특히 비건(식물성) 음식만을 섭취하는 완전한 채식주의의 김치와 사찰음식에 관심이 높다"면서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되는 장성군은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말했다.

정관 스님은 이어 "백산산, 축령산, 황룡강 등을 잇는 훌륭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세계의 음식문화 수요가 장성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장성을 소재 아인미술관에서 '남도음식의 품격, 문화로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발제에 나선 김현진 전남도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은 "우리의 전통음식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젊은 세대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발전이 힘쓰는 한편, 전통음식과 문화를 함께 상품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의 음식문화 발전을 이끌고 있는 청년 전문가 그룹인 김진환 백련동반백농원 실장은 "적극적인 지역 농산물 사용을 통한 농업인과의 상생,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이 앞으로의 남도음식 문화를 선도하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옥 카페를 운영하는 공승연 문화가꿈터 대표는 "행정과 연구, 산업, 문화 등 각 분야별로 원활하고 건강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자유토론을 진행한 김영미 동신대 교수는 "이번

라운드 테이블 회의는 장성의 음식 문화 발전 방안을 만드는 시작점"이라면서 "앞으로도 심도 깊은 논의와 의견 개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장성 5대 맛 거리 조성, 야시장 운영, 장성역 앞 먹거리골목 특성화 등 음식과 관광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김한중 장성군수는 "맛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전남은 음식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지임에도 그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며 "추후 국립남도음식진흥원을 장성에 유치해 남도 음식을 국가 음식 브랜드로 확립하고, 지역 소득 증대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진흥원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다. /장성=김홍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 대표음식 1위는 역시 곰탕

'나주밥상 대표 맛집' 계획 수립 전국 소비자 1919명 인식 조사 응답자 97% "방문 의향 있다"



나주 곰탕·홍어삼합·구진포 장어.

나주시가 '나주밥상 대표 맛집'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역 대표 맛집 지정·육성을 위한 '나주밥상'(가칭) 종합계획 수립의 첫 단추가 될 '소비자 인식 설문 조사' 이번 설문은 향토 음식 자원의 보존, 먹거리 관광 명소화를 위한 '나주밥상 브랜드화' 사업 기초 자료 수집 목적으로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6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은 '응답자 기본조사', '나주시 9음식점에 대한 인식', '나주대표 맛집 지정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 3개 분야 1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온라인(QR코드·누리집 팝업창) 설문으로 2주간 진행된 조사에는 전체 접속자 4323명 중 44.3%인 1919명이 참여했다.

본 설문인 '나주시에 가볼만 한 맛집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88.6%(1700명)이 '있다'고 답했다.

선호하는 나주 대표 음식은 '곰탕'(78.1%), '홍어'(7.1%), '불고기'(4.8%), '장어'(4.5%), '기타'(5.5%)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대표 맛집 지정 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음식

종류도 '곰탕류'(31.5%), '불고기·생선 등 구이류'(15.6%), '고기보쌈·홍어삼합 등 수육'(12.6%) 등으로 유사성을 보였다.

음식점 개선 사항으로는 시설환경(29%), 맛(21.8%), 친절도(19.4%), 위생(18.5%), 상차림(11.3%) 등 분야별로 고르게 분포했다.

'나주밥상 대표 맛집 지정 시 방문 의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2%가 '방문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다. 맛집 지정 기준으로는 '지역 향토 대표음식 메뉴 취급'이 37.4%로 가장 높았으며 '영업장 환경(청결·위생·화장실 등)'(26.1%), '로컬푸드 식자재 사용'(11.1%), '상차림'(9.9%) 등을 꼽았다.

시는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표 맛집 지정·육성 기준을 마련하고 관내 외식업소 대상 나주밥상 참여 업소를 공개 모집할 계획이 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생활 목제품 보급·기능인 양성...장흥군, 목재산업 중심지 도약 박차

국산목재 활용 각종 목제품 생산 380회 교육 목공예인 562명 배출

장흥군이 지역 목재산업 부흥과 관련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와 목공예센터는 목재 관련 행정업무, 디자인 개발, 목제품 생산 등 목재 산업과 목재인력 양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층에는 홍보전시실, 체험형 갤러리카페, 제품 제작실을 갖추고 있으며 2층과 3층은 교육실, 세미나실, 창업보육실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편백, 단풍나무 등 국산목재를 활용한 양면·단면 상패, 탁상용·파티션 명패 등이 장흥군 직영 목제품으로 제작된다.

일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목재 만년필, 볼펜, 텀블러와 체험형 목제품인 독서대, 연필꽂이, 화병, 각종 거치대를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고 있다.

목재산업지원센터는 도마, 텀블러 우수디자인(GD)과 상표권 등 14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2016년 개관 이래 현재까지 21억 2900만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 목공예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목공 교육.

목재산업지원센터 내 창업보육실에는 전남장흥 지역 자활센터, 신활력 플러스 사회적 협동조합 등 2개 기관이 입주해 있다.

입주 기관은 유아용 목재 장난감 개발과 편백 공방·체험장, 목재오일 추출 및 화장품 제조, 아로마 테라피 교육 운영으로 실용적인 목재산업 아이템 육성에 힘을 모으고 있다.

건너 편에 자리한 전남 목공예센터는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380회의 교육을 통해 목공예 기능

인 562명을 배출하여, 지역 목재산업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 등 목공예 문화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군 목재산업지원센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설립된 목재산업 전문기관"이라며, "일반인이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목재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흥=김홍호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팜한농 스마트 농업 구현 손 잡았다

데이터 기반 농업 컨설팅 서비스

함평군과 (주)팜한농이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은 지난 24일 그린바이오 기업인 (주)팜한농과 군청에서 스마트 농업 확산 및 농축수산물 유통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와 이유진 (주)팜한농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군에 스마트팜 발전 위한 연구 개발과 농축수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하우스 농기는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통해 측정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농장주는 서비스를 통해 휴대폰 하나로 온습도 등 실시간 농장 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병해충 예



이상의(왼쪽) 함평군수와 이유진 (주)팜한농 대표.

측을 통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우리 군이 스마트팜 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시 '향교랑 놀자, 장명루 만들기' 체험

내달 3일 신청 없이 참여 가능

나주시는 오는 12월 3일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인 나주향교 굽은 소나무 학교 '향교랑 놀자, 장명루 만들기' 체험을 개최한다.

올해 마지막 프로그램이 될 12월 향교랑 놀자는 '미리 미리 크리스마스! 소원팔찌 장명루 만들기'를 주제로 오방색실로 장명루를 짜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명루'(長命縷)는 오색실로 만든 매듭팔찌로 예로부터 단오날에 잡귀와 병화를 물리치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어린 아이들의 팔뚝에 동여매주는 풍습이 전해져오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는 사전신청 없이도 12월 3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나주향교를 방문하면 된다.

장명루 만들기 외에도 나주향교에서는 크리스마스 포토존에서 사진 찍기, 전통놀이, 금성별곡 목판서화, 죽방울 만들기, 이야기할머니, 향교 해설 등 다양한 체험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다.

보물찾기와 딱지치기, 투호던지기, 고리던지기 미니대회 등 소소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조준 굽은소나무학교 센터장은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으로 걱정이 많은 시기에 장명루를 만들어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다가올 새해 소원을 빌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2월 향교랑 놀자 프로그램 문의는 나주향교 굽은소나무학교 공식 밴드, 블로그를 확인하면 된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2016년 개항 강진항 애물단지 전략...양식장 피해 갈등에 운항 중단

단 두 차례 화물선 운항 후 방치 전남도 양식 면허 탁상행정 지적

지난 2016년 강진항과 제주 서귀포항간 배길 운항을 위해 조성된 강진항이 지금까지 단 두 차례의 화물선 운항을 끝으로 애물단지 신세가 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전남도가 시행한 강진항은 지난 1998년 해양수산부에서 연안항(국가 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00년 강진항(옛 신마항)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제와 방파제, 화물부두, 선착장 시설 등 국비 253억원을 투입해 2016년 3월 준공했다. 전남도는 그해 5월 강진군에 관리권을 넘겨줬다.

2017년 10월 중 강진-제주간(주 제마해운) 화물선 시범 운항과 함께 두 차례 화물선 운항을 시작했지만, 장흥군 내저 어촌계에서 설치한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항운사 측은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며 운항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강진군과 장흥 어촌계(내저, 용암, 신리)와의 주민간담회를 통한 협상과정에서도 과다한 보상비 요구에 따른 재원 부담 등 갈등들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문제는 전남도가 지난 2000년 9월 '강진항'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수립 고시 이후 장흥, 완도 어촌계에 이미 예정돼 있던 사업 예정지에 양

식 면허를 내주면서 발생했다는 게 강진군의 설명이다. 이미 예정돼 있던 항만사업지에 전남도가 양식 면허를 내주면서 항로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 제공을 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남도는 장흥 내저에 (2001년 8ha→2015년 20h)로 12ha 추가, 완도 화가어촌계(1998년 24ha→2015년 45h)로 21ha 등에 대해서 신규면허지를 허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강진군 관계자는 "항로 확보를 위한 '항주파 영향 시뮬레이션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바 종료되는 대로 전남도와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장흥, 완도 어촌계와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공모' 선정

국비 10억 확보...병영면에 조성

강진군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2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전국 '청년마을만들기' 해당 지자체 27개소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3곳의 선정지에 강진군이 확정되면서 국비 1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방 청년들의 유출방지 와 도

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만들기의 후속 사업으로, 청년들의 공유 주거시설을 조성해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취·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군은 올해 안에 국비 10억원을 교부 받아 공유주거인 병영면 성남리 일대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청년 공유주거시설을 조성한다. 연면적 524㎡의 3층 건물로 원형형 숙소, 쉼어하우스형 숙소 및 커

뮤니티센터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설이 건립되면 병영시장, 불금불과 청년창업공간과 연계해 청년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청년인구 유입과 청년창업에 선도적 역할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불금불과 축제장 내 공간에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이 청년 창업매장을 방문하도록 유도해 병영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며, 나아가 젊음과 다양성으로 새롭게 변하는 병영면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강진군 청소년 문화예술 경연대회. 최근 강진군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에서 청소년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의 끼와 꿈을 펼치는 '청소년어울림마당 문화예술경연대회'가 열렸다. 이번 문화예술경연대회에는 밴드, 댄스, 시물놀이, 악기연주 등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8팀이 참가해 관객의 박수와 응원속에 경연을 마쳤다. <강진군 제공>